"드론과 함께 멋진 미래 꿈꿔요"

진주가람초, 드론 방과후 강좌 운영

경남 진주 가람초등학교(교장 김우영)는 드론 방과후 강좌인 '꿈꾸는 드론'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드론 방과후학교는 경남교육청의 위탁강사 프로그램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첨단 SW분야 활성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경남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강료와 교재비를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

드론 방과후학교 '꿈꾸는 드론'은 월요일(A반), 화요일(B반), 금요일(C반)에 각각 2시간씩 3개 반이 개설되었다.

1기(6월 17일부터 10월 말)는 5~6학년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각 반 10명의 소수 정예 교육을 실시한다. 2기는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이 중요시 되는 강좌이므로, 많은 기기를 함께 사용해도 전파의 교란이 없어 안정성을 인정받은 국산 드론을 사용하며, 총 48시간의 수업을 통해 드론의 역사, 구조, 활용 방안 등의 이론적인 부분과 조립, 비행 실기, 아두이노 드론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까지 습득하게 된다.

김우영 교장은 방과후학교 강좌를 참관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드론이라는 첨단과학을 접하게 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가람초등학교는 앞으로 드론 외에도 다양한 SW교육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첨단과학기술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기 기자 khk@

"물건 팔 때마다 나눔의 마음 가득"

거제중앙초, 북한 친구들 돕기 '통일나눔장터' 열어

경남 거제중앙초등학교(교장 김기태)는 7월 14일 아침 9시부터(2시간 동안)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번 통일나눔장터는 통일연구시범학교의 교육과정 및 친구사랑주간과 연계해 물건을 팔고 난 수익을 전액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기부, 북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일나눔장터'를 위해서 학생들과 전 교직원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으나 재사용이 가능한 도서류, 의류,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가져왔으며 학부모회에서는 이 장터를 위해 며칠 동안 손수 제작한 물품들을 기부하여 더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는 두 개 학년씩 짝을 맺어 1, 2, 3학년 물품을 4, 5, 6학년에 보내 판매를 대신해주는 형식의 형제 맺기를 실시해 저·고학년 학생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4, 5, 6학년 판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물품 수집, 가격 책정, 진열 및 판매까지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물건을 사는 학생들은 합리적 소비와 선택의 경험을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부모, 지역주민들도 장터에 나와 물품을 구매하고 기꺼이 나눔과 기부에 동참했다.

이날 '통일나눔장터'에 참여한 6학년 판매 학생은 "판매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닌데도 물건이 팔릴 때 마다 기부와 나눔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거제중앙초등학교 '통일나눔장터'는 전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한 행사여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김호기 기자 khk@

뮤지컬 속에 우리의 역사가 있다

통영충렬초,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 뮤지컬 공연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특설무대에서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학의 날개'라는 창작뮤지컬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적을 물리친 백성들과 평범했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이다.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 김용은 단장(충렬초 교장)은 "통영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뮤지컬로 만들었다"며 "뮤지컬로 다시 만들어진 임진왜란과 그 속에 녹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꿈틀꿈틀통영청소년뮤지컬단의 단원인 여석현(동원중 2학년) 학생은 "직접 이순신을 연기하면서 통영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꿈틀꿈틀뮤지컬단은 2013년도에 창단되어 통영지역의 초·중·고등학생 36명으로 구성된 지역연합 뮤지컬단으로서, 2013년 정기공연 '꿈틀꿈틀 표류기'를 시작으로 통영연극제,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2014, 2015, 2016 3회), 교육부 주관 행복박람회 참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공연,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공연, 2014년 정기공연 '우리는 10대다', 2015년 정기공연 '꽃비 내리는 날' 등 많은 공연을 통해 학생뮤지컬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8월 14일 통영 한산대첩축제에서 1시간 30분 분량의 뮤지컬 '학의 날개'를 공연할 예정이다.

김호기 기자 khk@

학업에 지친 우리 마음 달래다

통영충무중 3FR밴드, 'SCHOOL OF ROCK' 참가

경남 통영 충무중학교(교장 차윤선) 밴드동아리 3FR은 7월 9일 도천동 스쿨오브락 공연장에서 'SCHOOL OF ROCK' 공연에 참가했다.

통영 내 학생 밴드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SCHOOL OF ROCK' 공연은 경남밴드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충무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밴드동아리 '3FR'은 본 공연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대표 밴드이다.

특히, 이번 3FR밴드의 공연 테마는 '화합'이었다. 학생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공연을 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함께 노래하고 소통함으로써, 사제 간의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3FR밴드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가 함께 공연에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남도내 경연대회에서 수회 입상한 경력이 있는 3FR밴드는 남다른 실력으로 이번 'SCHOOL OF ROCK' 공연에서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타 학교 학생들과 음악적 교류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학생은 "학업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공연이 너무 즐거웠고 특히 선생님과 함께 뛰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신나는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김호기 기자 khk@

건전 사이버 문화 선도

김해신안초, 선플음악회 개최

경남 김해신안초등학교(교장 이윤옥)는 7월 14일 오전 아침 등굣길 선플누리단 50명과 합주부 25명이 주축이 되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사이버 문화를 조성하자는 '선플음악회'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자는 운동으로, 김해신안초는 경남 및 나아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플운동 우수학교이다.

이날 합주부원들이 다양한 선플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본 학생들이 합주부에 응원의 선플을 달아 서로가 서로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이윤옥 교장은 아침 등굣길 합주부원들과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플래시에서부터 선플을 달자고 개작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해 전교생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주면, 이 자체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이라면서, 앞으로 월 1회 아침 등굣길 선플음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2014, 2015년 선플 지도자 대상을 수상한 박현성 교사는 "선플운동은 인터넷에서 선한 댓글을 다는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등의 친구를 배려하는 모든 운동이 선플운동이 될 수 있다"며, "선플운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캠페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호기 기자 khk@